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주요 연구영역의 탐색*

김 시 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국내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로 범죄심리학이 어떤 영역들을 연구해야 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주로 심리학 분야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한정시켜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 국내외 일부 범죄심리학 교재들의 주요 장과 그 구성내용, 그리고 범죄심리학과 연구영역들이 중첩되는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의 국내외 일부 저술들의 주요 장과 내용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와 세 분과학회 등 총 세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04년 마지막 호 또는 2005년 호까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들 학회들 중 일부 학회와 법심리학회에서 실시한 심포지움의 주제와 발표내용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와 응용의 두 차원에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일반인이 범죄를 행하고,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전과정을 8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각 과정에 상응하는 연구영역, 관련된 심리학의 분야, 그리고 범죄심리학의 하위 분야를 제시해 봄으로써 연구자가 상정하는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주로 다루어야 될 연구영역을 탐색해 보았다. 주요 연구영역으로 범죄심리학의 이론, 일반심리학적 이론, 공격성, 분노, 도덕성, 청소년 비행, 범죄동기와 범죄인 심리, 범죄피해자, 수사기법, 증언, 범죄자 평가, 상담, 교정, 사회복귀,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주요어 : 범죄심리학, 법정심리학, 법심리학,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

* 본 연구는 2003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김시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E-mail : mind@kyonggi.ac.kr

연구자가 판단하기로는 한국인들은 '범죄심리학'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친숙해 있는 것 같다. 즉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큰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나 범죄자에 대한 예상, 그들의 가정환경, 범죄의 동기 등에 대해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매우 당연하게 기대한다. 실제로 언론 보도 매체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일반 심리학자와 범죄심리학자들의 전문적인 인터뷰를 함께 보도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범죄심리학'의 학문적인 정체성과 연구활동을 고려해 보면, 심리학자나 범죄심리학자들의 전문적인 설명이 일반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분야의 실무자나 범죄와 관련된 타 학문 분야의 학자들의 범죄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확장시켜 줄지는 의문스럽다.

국내에 범죄심리학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장병림이 'Crime and Human Mind(Abrahamsen, David, 1944)'을 번역한 '범죄심리학(1960)'이 출간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책은 1950년대의 그 학문적 역사가 일천한 한국 심리학의 상황에서 심리학의 전문 하위분야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국내 심리학자의 학문적 성과였다. 그러한 작업은 범죄심리학에 대한 국내 심리학자들의 학문적인 관심과 연구활동을 크게 자극시키는 학문적인 영향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나 범죄관련 실무기관에서의 '범죄심리학'의 강의를 확대시키거나 일반인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후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일부 심리학자들의 범죄심리 관련 보고서나 연구들(예를 들면, 고재홍(1994), 이민규(1987), 장병림(1969, 1970), 정한택(1970, 1971 등), 그리고 심

리학 이외에서는 1992년 이상현의 범죄심리학 '의 저술과 연구활동(1985, 1987) 및 동국대학교와 국내 범죄관련기관에서 활발한 강의활동을 함으로써 국내 범죄심리학의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그 후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에 들어 심리학자들에 의해 '법심리학(박광배, 1995)과 '법의 심리학(윤현섭, 1995)', 그리고 '범죄심리학(홍성열, 2000)'이 출판됨으로써 국내 심리학계에 범죄심리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1년 10월,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의 '범죄심리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 2001년 6월에 한국심리학회에서 주최한 '범죄와 심리학'이라는 주제하의 춘계심포지움, 2001년 9월에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에서 주최한 '범죄와 심리학 II' 추계심포지움 개최를 기점으로 일부 심리학자와 범죄심리사가 되고자 하는 심리학 및 심리학 관련분야의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에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에 범죄심리학과가 창설되어 현재 석·박사과정에 30여명, 또한 2003년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범죄심리 전공이 개설되어 2005년도 3명의 졸업생을 포함하여 1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범죄심리학의 이론과 응용 연구를 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범죄심리학이 학문적 기초를 본격적으로 형성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국의 범죄심리학의 상황하에서 국내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기초형성의 일환으로 한국 범죄심리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한국의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연구해야 될 지향점을 찾고, 이로써 연구들의 집중적인 성과가

축적되며, 결과적으로 한국 범죄심리학과 심리학 전반에 걸쳐 이론적 그리고 응용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한국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작업은, 광의적으로는 범죄심리학이 인간의 범죄행동을 다루는 타 학문분야인 범죄학, 사회학, 법학 등과의 학문적 차별성과 독립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즉 한국의 정통적인 심리학에 기반을 둔 ‘심리학적 범죄심리학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협의적으로는 국내 심리학내의 법심리학, 외국의 법정심리학과 연구영역의 중첩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이들 범죄와 관련된 심리학의 하위 분야들의 학문적인 정체성들이 각기 명확해짐으로써 상호 학문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첫째, 특정 학문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인 연구의 영역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주요 정의를 살펴 보고, 이와 더불어 연구자가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한국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연구자 나름대로의 잠정적인 정의를 제시할 것이다. 둘째, 국내외의 범죄심리학의 주요 교재의 장과 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또한 범죄심리학과 그 연구영역이 중첩되는 외국 학자의 법정심리학과 국내 학자의 법심리학 교재 구성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범죄심리학의 차별적인 연구영역을 탐색해 볼 것이다. 셋째, 미래 한국의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의 탐색을 위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과 한국심리학회 산하 5개 학회에서 발간한 창간호에서부터 2004년까지의 학회지들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들 학회와 법심리학회에서 실

시한 주요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대상으로 국내 심리학자들의 현재까지의 범죄와 관련된 심리학적 및 범죄심리학적 연구성과들을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의 이론과 응용이라는 차원에서 분류해 보았다.

앞서의 범죄심리학의 정의, 범죄심리학 교재의 주요 연구영역, 그리고 국내 심리학자들의 범죄 관련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자료로 하고, 또한 연구자 나름대로 일반인이 범죄를 행하고, 처벌되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전과정을 8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의 범죄심리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정통 심리학의 기반을 잃지 않고 한국 심리학의 독립적인 하위 분야로서의 범죄심리학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학문적·제도적인 조건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범죄심리학이 어떤 주제를 연구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기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외국의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역사와 학자들의 연구물들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적 연구물에서 기술되는 이론,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들의 실제 응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의 심리학도, 범죄관련 실무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관심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범죄심리학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범죄심리학이 어떤 학문이며,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잠정적인 지침이라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국내의 심리학

자들에 이루어진 범죄관련 연구들을 연구주제를 초점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범죄심리학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요 연구영역들을 잠정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욱 명확한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이에 대한 심리학자들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요구되는 외국의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역사와 연구들의 배경이론, 연구방법 등에 대한 질적 분석과 연구들의 실제 응용에 대한 철저한 고찰은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의 범죄관련 연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추후 연구나 다른 연구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범죄심리학의 정의를 고찰하고, 둘째, 범죄심리학, 법정심리학, 법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의 고찰과 비교, 셋째, 국내 범죄심리 관련 연구물 고찰이다. 이를 통해 한국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탐색 및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는 기록물 조사(archival research)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래의 연구방법의 내용은 연구의 세 번째 부분에 대한 것이다.

연구대상

국내 심리학자들의 범죄심리 관련 연구물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 심리학회와 그 소속 학회들 중 5개 학회를 포함하여 총 6개 학회의 창간호에서부터 2004년도 마지막 호 또는 2005년 1호까지에 발행된 학회지, 그리고 한국 심리학

회와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에서 주최한 범죄 및 법 관련 심포지움 책자, 그리고 한국 심리학회의 소속은 아니지만 한국 법심리학회의 학술발표대회와 동 학회가 주최한 심포지움 책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자가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에 소속된 11개의 학회 총 12개의 학회들 중에서 6개의 학회와 학회지만을 선정한 것은, 해당 학회와 학회지의 학문적 성격이 범죄심리학이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영역과의 관련성이 타 학회나 학회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 시작전 각 12개 학회지의 목록을 검토한 바, 범죄관련 연구들의 수가 거의 없는 학회지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한국여성심리학회지는 여성의 범죄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 사회의 여성범죄의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여성 범죄관련 연구가 더 많아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연구대상 학회지로 선정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일반을 선정한 것은 11개의 소속 학회의 성격과 적합하지 않는 주제들 중에 범죄관련 연구들이 포함될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인 학회지 및 심포지움 책자의 학회지명과 학회지의 발행기간 및 심포지움 명칭은 다음과 같다. 학회나 학회지의 명칭은 해당 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2005년 4월 현재의 명칭을 사용했다

1. 학회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권1호(1968) - 23권2호(2004, 12))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권1호(1982) - 19권1호(2005, 2))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권 1호(1994) - 11권 특집호(2005,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창간호(1967) - 23권 4호(2004, 12))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권 1호(1988) - 17권 1호(2005, 2))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창간호(1996) - 10권 1호(2005, 3))

2. 심포지움

한국 심리학회 주최 :

1982년도 심포지움 - 「심리학의 사회적 기여」

1983년도 심포지움 - 「심리학 지식의 보급과 활용」

1985년도 심포지움 -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1986년도 제 5회 한국심리학회 동계연수회 - 「사회심리학의 전개와 방향」

1987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 「현대 산업사회와 인간적응」

1987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논문초록

1988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1988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및 추계심포지움

1991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II - 「심리학연구의 활성화방안」

1994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일상화된 국민 의식과 행동의 문제점: 심리학적 접근」

1994년도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 「의식개혁 :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994년도 한국심리학회동계연수회 - 「심리

학 연구의 최근 동향: '94」

1995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삶의 질의 심리학」

1995년도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 「협상과 심리학」

1995년도 한국심리학회 동계심리학연구세미나 -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1997년도 한국심리학회 동계연구세미나 - 「정서지수와 지능지수에 대한 오해와 이해/고전 검사이론의 극복 : 일반화가능도 이론, 문항반응이론」

1999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2000년대 심리학의 전망과 과제」

1999년도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움 - 「문화와 심리학」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 「이론심리학과 응용심리학의 교류」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범죄와 심리학」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주최:

1999년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2000년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2000년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2001년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II」

2001년도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2002년도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및 정기총회 자료집

2003년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춘계 세미나 - 「범죄심리학 그리고 수사」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및 정기총회 자료집

2004년도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 세미나 - 「심리학과 형사정책」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및 심포지움 자료집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및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 법심리학회 주최:

2000년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 「청소년·법·심리」

2001년도 한국법심리학회 심포지움 - 「사법 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2001년도 학제간(법심리학회 등) 심포지움 -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년도 한국법심리학회 하반기 심포지움 - 「폴리그래프(Polygraph)」

2002년도 한국법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한국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까닭은」

2003년도 한국법심리학회·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움 - 「목격자 진술: 법과 심리학의 만남」

2004년도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2004년도 한국법심리학회·한림응용심리연구소 공동주최 추계학술회의 - 「연쇄 살인범죄와 법심리학적 제문제」

연구 주제의 분류 기준과 항목

분류기준

본 연구는 한국 범죄심리학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주요 연구영역을 한국 사회와 한국 심리학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그에 적합한 연구영역을 탐색하고자 하는 데 있는 바, 지금까지의 한국 심리학자들의 범죄관련 연구성과물을 연구주제의 범죄, 법, 그리고 범죄심리학과의 관련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범죄심리학 관련 연구성과를 검토 및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심리학이 집중해야 될 연구영역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학문적인 성격이 다른 심리학의 하위 분야의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은 더욱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주제가 일반적인 심리학과 특정 하위 심리학의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범죄행위와 범죄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를 다룬 연구들을 '이론적 기초'의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범법행위를 저질러 사법기관에서 정식적인 법적인 처벌을 받은 범죄청소년을 제외한 일반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 비행, 일탈행위 등과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러한 연구들이 청소년 범죄와 성인 범죄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초'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론적 기초'를 다시 '일반 심리학적 및 하위분야 심리학적' 이론적 기초, 그리고 범죄심리학이나 법심리학과 관련된 학문적 성격이나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이론적인 연구나 고찰연구들은 각기 '범죄심리학적', '법

심리학적' 이론적 기초로 나누었다.

둘째, 실제 다양한 유형의 범죄인의 심리, 범죄 수사, 범죄인 평가 및 그 측정도구, 범죄인 상담 및 교정 및 재판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거나, 직접적으로 청소년·성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연구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 이론과 지식을 가설검증하는 이론지향적인 연구만을 제외하고는 '응용 범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가 국내의 범심리학과 차별성을 찾고자 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있으므로 '응용' 범주는 다시 '범죄심리학적 응용'과 '범심리학적 응용'으로 구분하여 법, 재판 그리고 법률 적용 등에 관련된 연구주제는 범심리학적 응용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이 연구주제의 분류기준을 크게 '이론적 기초'와 '응용'으로 대별하여 분류를 한 다음, 구체적인 항목은 이론적 기초 범주에서는 심리학의 중요 이론이나 개념을 중심으로, 응용 범주는 범죄 및 법과 관련된 실무적인 응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비록 이론적 연구 성향을 지닌 연구라 할지라도 실무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연구들은 응용에 포함시켰다.

항목

이론적 기초:

- 일반심리학 및 심리학 하위 분야의 이론적 기초
 - 청소년 문제(문제 행동, 비행, 이탈, 부적응, 학교폭력, 자살 왕따 등)
 - 공격성
 - 분노
 - 도덕성
- 범죄심리학적 이론적 기초
- 범심리학적 이론적 기초

응용:

- 범죄심리학적 응용
 - 청소년 범죄자
 - 성인 범죄자의 범죄동기와 심리 및 행동
 - 범죄수사(면담과 신문기법, 최면과 최면수사, 거짓말 탐지, 프로파일링, 협상)
 - 범죄인 심리평가 및 그 측정도구(정신감정)
 - 범죄인 상담과 교정 및 사회복귀
 - 범죄예측
 - 피해자
 - 여성범죄
 - 범죄와 관련된 제반 사회적 환경
- 범심리학적 응용
 - 재판
 - 증언
 - 형사책임
 - 법과 법률제도
 - 법의식과 법률행위

위의 분류 기준은 크게 '이론적 기초'와 '응용'으로 나누고 각기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으나, 아직은 범죄심리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의 기준 역시 분명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이러한 분류의 시도가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의 탐색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한 것이며, 추후 더욱 체계적인 분류기준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범죄심리학의 정의에 대한 고찰

범죄심리학 정의 규정의 어려움

일반인들도 '범죄심리학'을 그 어의에 기초

하여 ‘인간의 범죄행위와 그 동기, 범죄자의 심리, 성격에 대한 연구’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구자도 이와 같은 어의적 의미에 심리학의 일반적인 정의를 고려하여 범죄심리학을 잠정적으로나마 ‘범죄심리학이란 인간의 범죄행동과 범죄인의 심리과정을 심리학적인 원리와 이론을 적용하여 이해·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와 그 주요 연구영역을 고찰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범죄심리학의 정의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국내의 일반인이나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어의적인 ‘범죄심리학’을 의미하는 즉, 영어로는 ‘Criminal Psychology’나 ‘Psychology of Crime’이라는 제목하의 외국의 책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즉, 범죄심리학의 명칭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외국의 범죄심리학도 그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연구활동이 왕성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차재호(2001)는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 역사, 명칭의 문제 등에 대해서 고찰한 바, 현재 외국의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위상을 “대부분의 백과사전이나 심리학의 백과사전에서도 ‘범죄심리학’이라는 이름을 찾아 볼 수 없다.....법심리학의 최근 교과서인 Wrightsman의 Forensic Psychology의 색인에는 ‘범죄심리학’이 나오지 않는다. 범죄학 교과서에서도 Criminal Psychology란 항목을 색인에서 찾을 수 없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심리학이 매장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차재호, 2001. p.19-20).

위와 같은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위상을 반영하듯이 현대의 영미의 범죄심리학자들은 범

죄심리학에 대한 상당히 합의된 정의없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범죄심리학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범죄행동을 이해·설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학문분야들이 심리학, 범죄학, 사회학, 법학, 인류학, 경제학, 법학, 의학, 철학 등과 같이 다양하며, 인간의 범죄행동이 개인의 생물생리적 요인, 가족 및 대인관계적 요인, 사회환경적인 요인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심리학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적인 이론과 지식이 즉 통합심리학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심지어는 범죄에 대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합시키는 ‘범죄학’조차도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의 기여 때문에 범죄학의 학문적 독립성을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Hollin, 1989. p.1). 따라서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애매함과 위상으로 인해 범죄와 범죄자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범죄심리학’이나 범죄심리학적인 저술을 하면서도 정작 범죄심리학에 대한 확정된 정의를 기술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은 Putwain과 Sammons(2002, p.4-5)의 “범죄학적(criminological), 법정(forensic), 법률(legal), 범죄(criminal)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은 이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들 분야간의 경계, 정의에 대한 논쟁과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연구자는 범죄심리학이 어떤 학문이며 그 정의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범죄심리학 서적을 읽으면서, “What does criminological (or criminal, forensic) psychology is do?”라는 문구를 자꾸 대하게 되고, 따라서 범죄심리학에 대한 분명한 정의 규정 대신에 일반적인 설명으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

았다. 이와 같은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상황에서 그나마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를 몇 개 찾아 볼 수 있었다. 다음에는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의 예를 몇 개 제시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 탐색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범죄심리학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

· Hans Gross(1905, 제2판; “어의적으로(literally),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은 단지 범죄자의 정신병리, 범죄자의 심리(mind)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내력 뿐만 아니라 범죄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심리학의 한 형태(form)가 되어야 한다.”(Criminal Psychology, Kallen 역, 1968, p.3).

· Andrews와 Bonta(2003)

PCC에 대한 작업적 정의(working definition)는 다음과 같다:

“과학으로서, PCC는 ① 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의 윤리적 및 인본주의적 적용과 ② 합리적 설명 체계의 구성을 통해 개인의 범죄 행동을 이해하려고 접근한다.

· 실무적인 측면에서, PCC는 범죄행동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러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무적 측면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의 윤리적 적용과 범죄와 형사사법체계 절차와 관련된 인적 및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한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의 윤리적 적용을 포함한다”(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PCC), Andrews & Bonta, 2003. 제3판 p.15).

위에서 예를 든 Andrews 와 Bonta(2003)의 정의는 단일 명칭으로서의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에 대한 규정적인 정의라기보다는

그의 PCC 저술작업을 위한 지침의 기능을 하는 잠정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 조은경(1995) : “심리학의 일반적인 원리와 이론을 범죄와 관련된 현상들에 적용시켜 범죄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범죄행동의 교정과 예방을 다루는 응용심리학의 분야이다”(사회문제연구회 “법, 범죄 그리고 심리학” 발표회, 1995(차재호, 2001, p.7에서 재인용)).

· 이상현(2001) : “범죄나 비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심리학이 대상으로 하기 쉬운 문제에 관하여 심리학적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인문과학의 일부분이다” 범죄심리학(2001, 개정판, p.8.).

위에서 범죄심리학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내용들을 국내외 학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해 보면,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범죄자의 정신병리, 범죄인 심리, 범죄행동, 비행, 범죄행위에 대한 제반 사법적 절차이며, 방법론적으로는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방법, 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적이다. 둘째,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범죄행동의 예측, 교정, 예방,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내용이 중심이다. 즉, 범죄심리학의 정의의 내용은 주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응용적 측면에 대한 기술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범죄심리학이란 인간의 범죄행동과 심리 및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법률적인 절차와 반응을 심리학적인 이론과 지식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응용하려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겠다.

이와 같은 정의가 연구자가 본 연구를 통해

탐색했던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정 학문의 정의는 시대와 학문적인 주요 주제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를 하게 되며, 그러다가 학문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학문의 큰 흐름이 형성되게 되면 더욱 간명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견고한 범죄심리학의 정의가 형성될 것이다.

범죄심리학, 법정심리학, 법심리학 관련 문헌의 주요 연구영역에 대한 고찰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

범죄심리학의 정의를 살펴보고 연구자 나름대로 정의를 규정한 까닭은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탐색 및 설정해 보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에는 범죄심리학이라는 제목하의 교재와 그 명칭은 범죄심리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술의 내용상 '범죄심리학'을 기술하고 있는 국내외 일부 문헌을 중심으로, 그 주요 장과 구성내용을 고찰함으로써 범죄심리학이 주로 다루어야 할 연구영역을 탐색해 볼 것이다. 그 주요 문헌명과 구성내용들을 <표 1>로 제시해 보았다.

<표 1>에서 제시된 문헌들은 그 문헌명이 'Criminal Psychology', 'Psychology of Crime',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Psychology and Crime'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이들 모두는 연구자가 상정하는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의 학문 명칭과 개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들이다. 여기서 하나의 특기할만한 사항은 미국 범죄 관련 심리학자들은 'Criminal Psychology'라는 명칭을 기피하고, 반면 영국 또는 오스트리아(예, Hans Gross)의 범죄 관련 심리학자들이

'Criminal Psychology' 또는 'Psychology of Crime'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표 1>에서 나타난 범죄심리학 관련 문헌들의 구성내용 등을 자료로 해서, 상호 구성내용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성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Hans Gross의 '범죄심리학'의 구성내용은 법정관련 종사자들의 실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주로 '재판심리학'이라고 판단되어, 구성내용상으로는 법심리학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다음의 종합적 분석에서 제외했다.

첫째,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일반 심리학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범죄행동의 원인론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다양한 범죄행동과 범죄자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범죄자의 교정, 치료, 사회복귀와 같이 범죄자의 행동과 정신적 장애를 변화시키는 문제나 적응을 다루고 있다.

넷째, Abrahamsen(1994)과 Batol(2002)을 제외하고는 모두 '범죄예방'을 다루고 있는 점이다. 이는 많은 학자들이 범죄예방을 매우 중시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추정된다.

다섯째, 경찰, 피해자, 범죄행동의 발달, 여성범죄자, 청소년 비행과 같은 영역들은 상호 중복성이 적은 주제들로서,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분야와 각 저자들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범죄심리학이 다루어야 할 연구영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범죄심리학에서 다루는 범죄인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한 인간의 범죄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그 상호작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범죄행동

〈표 1〉 범죄심리학 관련 문헌들의 주요 연구영역

책명	저자 및 국가	년도	주요 Chapter명 및 구성내용
Criminal Psychology a manual for judges, practitioners and students	Hans Gross (오스트리아) Horace M. Kallen 역 (1968)	1905 (제2판)	1부: 증거채택의 주관적 조건 (재판관의 정신작용) 1. 증거채택의 조건- 방법, 심리학적 분야(보고의 완전성, 진실성 확성, 증거채택에서의 예상, 이기심, 비밀, 흥미), 현상론 - 정신 상태의 외적 표출 -일반적 외적 조건, 성격의 일반적 특징, 특 정 성격의 특성. 신체적 성격 구성 2. 추정의 조건 - 증거, 인과율, 회의론, 실험법, 비교, 개연성, 우 연, 설득과 설명, 추론과 판단 등, 2부: 범죄자 조사의 객관적 조건 (범죄자의 정신작용) 1. 일반적 조건 - 지각, 이해, 표상, 사고과정, 연상, 회상과 기억 등 2. 증거에 차이를 가져오는 조건- · 일반적 차이점- 남녀, 아동, 노인의 이해의 차, 천성과 양육 · 특수영향-습관, 유전, 기질, 모방과 존중, 걱정과 감정, 명예 · 오류원인-착각, 환각, 상상, 오해, 허위, 특수상태로서의 수면 과 꿈, 명상, 암시
Crime and Human Mind	David Abrahamsen (미국) 장병림 역 (1960)	1944	1. 범죄와 심리 2. 유전과 환경 3. 기능적 고찰 4. 심리, 정신병학적 검사 5. 범죄자의 분류 6. 소년범죄와 전시범죄 7. 실인범죄-심리, 정신병학적 고찰 8. 치료와 연구
The Psychology of Crime	David Abrahamsen (미국)	1960	1. 소개 2. 사회병리학과 범죄 3. 범죄행동의 공식 4. 가족의 긴 장상태 5. 청소년 비행 6. 정신장애와 범죄 7. 범죄자와 정서장 애가 있는 비범죄자 8. 범죄자분류 9. 급성적 범죄자 및 상습범 죄자 10. 성범죄자 11. 살인범의 성격 12. 범죄자의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연구 13. 형법과 정신의학 14. 범죄자의 재형성과 교 화 15. 범죄예방
Psychology and Crime	Clive R. Hollin (영국)	1989	1. 심리학과 범죄 2. 범죄이해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들 3. 심각한 범죄의 이해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들 4. 정신장애와 범죄 5. 심리학과 경찰 6. 법정에서의 심리학 7. 심리학과 범죄예방

〈표 1〉 계 속

책명	저자 및 국가	년도	주요 Chapter명 및 구성내용
The Psychology of Crime	Phillip Feldman (영국)	1993	1부: 기술 1. 범죄 2. 범죄자와 피해자 3. 경찰 4. 법정 2부: 설명- 5. 생물학적 요인 6. 개인차 7. 아동발달 8. 사회적 및 경제적 이론과 요인 9. 인지적 행동적 접근 3부: 통제- 10. 처벌체계 11. 범죄자치료 12. 범죄예방 4부: 요약 13. 요약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Ronald Blackburn (영국)	1993	1. 범죄, 범죄학, 심리학 2. 범죄의 측정과 분포 3. 범죄자 분류 4. 사회적 및 환경적 이론 5. 범죄에 대한 개인적 통합적 이론 6. 반사회적 행동의 생물학적 상관변인 7. 범죄의 가족적, 사회적 상관변인 8. 범죄자의 개인적 귀인 9. 공격과 폭력 범죄 10. 범죄와 정신장애 11. 성적 일탈과 범죄 12. 범정심리학과 범죄자 13.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 14. 위험 범죄자의 치료 15. 개입의 효율성과 윤리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D.A. Andrews & James Bonta (캐나다)	1998 (제2판)	1. PCC개관 2. 범죄연구에서 개인의 재발견 3. 범죄행동의 정의와 범죄행동 변인 탐구 4. PCC의 경험적 지식 5. 심리역동적 및 억제이론 6. 사회적 학습으로 :좌절-공격, 계층, 차별적 접촉이론 7. 일반 성격과 사회심리학적 접근: PIC-R 조망 8. 범죄행동의 발달적 측면 9. 범죄행동의 예측과 범죄자 분류 10. 예방과 교화 11. 예외적 범죄 12. PCC: 관련 영역에서의 적용 13. 범죄에 대한 일반 성격 및 사회심리학 ※2판과 3판의 내용은 거의 같으며, 단지 2판 (2003)은 전체 1장으로 줄여져 있음

〈표 1〉 계 속

책명	저자 및 국가	년도	주요 Chapter명 및 구성내용
Psychology and Crime	David Putwain & Aidan Sammons (영국)	2002	1. 소개 2. 범죄의 본질과 측정 3. 범죄행동의 생물학적 설명 4. 범죄행동의 심리학적 설명 5. 경찰과 범죄 6. 범죄자 프로파일링 7. 증언 심리 8. 법정 심리 9. 처벌, 처우, 예방 10. 학습에 대한 조언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Curt R. Bartol (미국)	2002 (제6판)	1. 범죄행동에 대한 소개 2. 청소년 비행: 발달적 요인 3. 범죄행동의 기원 생물학적 요인 4. 정신 병리: 생물심리학적 요인 5. 범죄행동의 기원 학습 및 상황적 요인 6. 정신장애 범죄 7. 공격과 폭력 8. 살인, 폭행 및 가정 폭력 9. 범죄적 살인 10. 성범죄 11. 경제범죄, 공공질서범죄, 기타 범죄 12. 약물과 범죄 13. 교정심리학
범죄심리학	홍성열 (한국)	2000	제1장 범죄행동 범죄행동의 정의, 범죄행동 원인에 대한 이론들, 범죄행동의 구분, 범죄행동에서 심리학의 위치 등 제2장 성격 이론을 통한 범죄행동의 설명 제3장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자아, 정서, 동기 제4장 범죄행동의 원인: 기존의 연구결과 제5장 정신병과 범죄행동 이상행동과 범죄행동, 정신병 범죄자 제6장 여성범죄자 제7장 범죄행동의 분류별 이해 도둑, 강도, 방화 살인과 자살 조직폭력 약물중독 유아 성추행 성폭력 제8장 범죄피해자 제9장 범죄행동의 수정과 예방

에 대한 연구는 다학제적임은 물론 심리학내에서도 통합심리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연구영역의 범위도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범죄심리학 연구영역의 특성과 법정심리학의 연구영역과의 비교

<표 2>에서는 연구자가 상정하고 있는 한국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가장 중첩되는 미국의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의 연구영역을 소개하겠다. 이를 통해 미국의 법정심리학과의 차별성을 지닌 한국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고찰했던 범죄심리학 관련 문헌들의

주요 연구영역과 법정심리학의 연구영역과의 비교에서 추출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Hans Gross(1905)의 'Criminal Psychology'의 연구영역은 오류없는 판결을 위해 재판관이 증거를 채택하거나 사건의 추이와 유무죄를 추정할 때 개입되는 재판관과 피고의 정신적 작용들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들이다. 그가 Kallen H. M.(1968)의 번역서의 '미국 번역판에 대한 저자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의 범죄심리학은 '범죄자의 정신상태 뿐만 아니라 판사, 전문가, 배심원, 목격자 등의 정신상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목격자 증언, 지각, 정신병리적 거짓말, 미신, 개연성, 감각적 착각, 추론, 성차 등을 다루고 있다.

<표 2> 법정심리학의 연구영역

책명	저자 및 국가	년도	주요 Chapter명 및 구성내용
Forensic Psychology	Lawrence S. Wrightsman (미국)	2001	1. 법정심리학의 도전 2. 법정심리학자의 역할과 책임 3. 경찰: 선발, 훈련 및 평가 4. 범죄 프로파일링 5. 범죄수사에서의 최면과 거짓말 탐지 6. 목격자 확인 절차의 개선 7. 경찰신문과 자백 8. 대안적 분쟁해결과 재판준비 9. 배심원 선발 10. 정신이상과 정신능력 11. 매맞는 여성 증후군과 가정폭력 12. 강간외상증후 13. 아동의 성적 학대 14. 아동 보호결정 15. 차별 16. 성희롱 17. 사형판결과 청원 18.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따라서 그의 ‘Criminal Psychology’는 범죄심리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범죄행동의 원인과 범죄자의 성격특성 등을 다루어야 마땅할 것 같은 연구영역의 광범위함에 비해서 재판과정에 관여되는 주요 대상들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범위가 협소하다. 따라서 그의 범죄심리학은 ‘재판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David Abrahamsen(1960)과 Curt R. Bartol(2002)과 같은 미국 심리학자들의 범죄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적 문헌들의 연구영역들은 Phillip Feldman(1993), D. Purtwain과 A. Sammons(2002) 등과 같은 영국의 심리학자들의 연구영역에 비해서 경찰, 법정심리, 증언심리, 처벌체계, 범죄자 프로파일링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P. Feldman 등의 영국의 범죄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들이 L. S. Wrightsman(2001)의 법정심리학에서 거의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법정심리학은 ‘범죄수사에서의 최면과 거짓말 탐지’와 같은 주제도 취급하고 있다.

한 마디로 법정심리학의 연구영역들은 백화제방식으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법정심리학의 연구영역을 설정하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언급이 Wrightsman(2001)의 저술 서문의 서두에 잘 나타나 있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에 법정심리학이라는 용어가 현 사회에서 매우 눈에 띄게 되었고, 더욱 많은 대학생들이 이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 But What is Forensic Psychology? 분명히 이 용어는 여러 해 동안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학문이 다루

고 있는 범위에 일치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 대중잡지, TV에 보여지는 법정심리학자와 범죄 프로파일러들을 거부(심지어 조롱하기도) 한다”(Wrightsmen, 2001, xvii).

넷째, 법정심리학에서는 거의 모든 범죄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론, 범죄자 유형 분류,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설명, 범죄자 치료 등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바로 법정심리학이 재판과 관련된 현장의 실무에 초점이 맞추어진 응용심리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점이 범죄심리학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주로 영국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들의 많은 부분이 미국의 법정심리학의 연구영역들과 중첩되어 있고, 차재호(2001)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심리학이 매장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p. 20) 라고 표현할 정도로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즉, 범죄심리학은 법정심리학에 흡수되어 있는 것이다.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의 특성과 법심리학의 연구영역과의 비교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심리학의 연구영역은 앞서의 범죄심리학 관련 문헌의 연구영역의 특성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르다. 즉, 범죄심리학에서처럼 기본적으로 범죄행동에 대해 심리학적 이론, 생물학적 이론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목격자 증언, 폴리그래프와 최면, 형사책임 재판, 양형의 일관성, 교도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앞서의

〈표 3〉 법심리학의 연구영역

책명	저자 및 국가	년도	주요 Chapter명 및 구성내용
법심리학	박광배 (한국)	2002	제1장 심리학과 법 심리학과 법의 차이배경, 증거에 관한 법제도 등
			제2장 범죄이론 고전, 사회학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론 등
			제3장. 목격자와 증언진술의 정확성, 성인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정서적 동요와 목격자의 기억, 성학대 피해아동의 목격진술 등
			제4장 폴리그래프와 최면 폴리그래프의 유용성, 최면에 의한 목격자의 기억인출 등
			제5장 형사책임과 정신장애 책임판단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 정신장애 항변 등
			제 6장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 미국의 성문규정, 언론보도의 편파적 효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제도 등
			제7장 양형의 일관성 판단자간 일치도 및 판단자 내 변산성 법이론과 선고의 일치도
			제8장 교도 수형의 심리적 효과, 처벌과 선도의 예방효과
			제9장 범죄예측 범죄예측에 대한 네 가지 비판, 범죄예측의 방법 등
			제10장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미연방헌법 수정 제 1조, 외설 등
			제11장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법제도적 배경, 아동/청소년의 성행위결정에 관여하는 요인,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능력 등
			제12장 탈세 이론적 관점들 측정의 문제
			제13장 과장·기만 광고 광고의 심리적 효과, 과장광고의 심리적 효과 등

범죄심리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던 ‘범죄예측’을 다루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이런 점에서 박광배(2002)의 ‘법심리학’은 ‘범죄심리학’과는 학문적인 차별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연구자가 상정하고 있는 한국 범죄심리학은 범죄인 수사에 응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인 수사시에 필요한 폴리그래프와 최면수사 기법, 그리고 범죄예측과 같은 영역은 범죄심

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견해에 대한 근거는 한국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언급할 것이다.

국내의 범죄심리, 법심리학 관련 연구들의 고찰

<표 4>는 한국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의 탐색을 위해, 지금까지의 국내 심리학자들의 범죄, 법, 범죄심리학적 연구물들을 연구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영역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편수를 정리한 것이다(연구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록 1>을 참조). 이를 통해 한국의 범죄심리학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국내 심리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집약해 보고 미래의 범죄심리학적 연구자의 연구노력의 방향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기대한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총 211개의 연구물 중에서 응용연구가 135개(64%)로서 이론적 기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자가 분류한 이론적 기초에 해당하는 연구물들이 순수한 이론적 연구가 적음을 감안할 때, 국내 심리학자들은 범죄와 법과 관련되어 응용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연구영역의 항목도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4>의 결과와 앞서의 국내외 범죄심리학 관련 연구영역의 고찰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비행과 범죄, 공격성, 범죄인 심리, 범죄인 상담 및 교정행목은 외국의 범죄심리 관련 연구영역과 중복된다. 그러나 국내의 범죄심리 관련 연구들에서는 외국의 범죄심리 관련 연구영역에서는 회소하게 설정된 범죄수사, 피해자, 범죄예측 등과 같은 연구영역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외국의 범죄심리학 관련 문헌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범죄예방'

연구영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 심리학자들이 범죄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 연구영역, 국내 심리학자들의 연구물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국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탐색적으로 제시하겠다.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의 탐색적 제시

앞서의 <표 4>에서 보았듯이, 국내 범죄심리학 관련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범죄심리학은 법정심리학으로 함몰되어버렸지만 한국의 범죄심리학은 그 연구기반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Wrightsman(2001)은 “법정심리학은 지난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부각되어진 학문이고, 아직도 형성되고 있고 발달의 와중에 있는 학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미국의 범죄심리학은 1990년대 후반기의 미국의 법정심리학의 격동적인 상황하에서 흡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한국의 범죄심리학은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노력이 계속된다면 학문으로서의 정체감이 분명한 심리학의 한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The Psychology of Crime”, “Criminal Psychology”와 같은 명확하고 한정적인 명칭대신에 “Psychology and Crime”, “Criminal Behavior; Psychological Approach”,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처럼 자신감 없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명칭하에서 그들이 실제 다루고 있는 연구영역들

〈표 4〉 한국 심리학자들의 범죄심리학과 법심리학 관련 연구영역

분류명	하위분류명	연구영역	주요 연구내용	연구수	비율		
이론적 기초	일반심리학 및 심리학 하위분야의 이론적 기초	청소년문제	문제행동, 비행, 일탈, 우울과 자살, 학교폭력과 왕 따, 가정환경, 매체충과 원조교제	44	76 (36%)		
		공격성	폭력영화와 공격행동, 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재, 공 격성 질문지	9			
		분노	분노표현양식, 분노조절, 분노평가척도	11			
		도덕성	도덕적 판단	2			
	범죄심리학적	이론검증	제한형, 지속형 판별분석, 아내폭행모델검증	2			
		개관	범죄심리학 정의와 연구영역, 한국 범죄심리학의 현재와 미래, 범죄심리학의 응용과 전망	6			
	법심리학적	이론검증	처벌크기 판단	1			
		개관	법심리학의 정의와 영역	1			
	응용	범죄심리학적 응용	청소년범죄자	청소년범죄사례, 애착유형과 부모양육, 정신병질적 특성		7	81 (38%)
			성인범죄자의 범죄동기와 심리 및 행동	수형자 특성, 이상동기범죄, 성폭력 범죄, 연쇄살인, 아내폭행		9	
범죄수사			면담과 신문기법, 최면과 최면수사, 거짓말 탐지, 프로파일링, 협상	23			
범죄인 심리평가 및 그 측정도구(정신감정)			범죄행동과 성격특성,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MMPI, PAI, 정신감정, 정신병질검사	14			
범죄인 상담, 교정 및 사회복귀			교정분류심사, 치료감호, 교정심리치료, 보호관찰제 도, 심리학자들의 역할	13			
범죄예측			수형자 문제행동과 재범예측, 범죄위험성의 평가, 비행촉발요인 조사도구	4			
피해자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피해 연구, 강간통념, 성폭력 인식, 가정폭력	8			
여성범죄			여성살인범의 성격특성	1			
범죄와 관련된 제반 사회적 환경			여론과 언론보도의 영향, 범죄보도의 특성과 문제 점	2			
법심리학적 응용			재판	형사재판 판결과 선고의 일관성, 판결과 재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시민참여재판	21	54 (26%)	
	증언(목격자, 피해자 등)	기억왜곡, 허위증언, 면담지침, 목격자 신뢰성	2				
	형사책임	형사책임과 정신감정	3				
	법과 법률제도	청소년 관련법과 제도, 가석방제도, 청소년 성범죄 자의 신상공개제도,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	13				
		법의식과 법률행위	준법행위, 한국인의 법의식, 아동·청소년의 법률행 위 능력과 성적 행위결정능력	15			
총 연구편 수				211	100%		

은 어의적인 ‘범죄심리학’에 해당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굳이 심리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심리학은 어의적으로 사전적인 해석을 할 때, 무엇보다도 범죄행위의 원인, 범죄행위 (감정, 사고), 범죄자의 성격,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인의 심리구조 및 과정 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인이 범죄를 행한 시각을 분기점으로 삼았을 때, 범죄를 시행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한 개인으로 존재하며, 범죄를 행하고 난 후에는 사회의 제도나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적 절차와 사회적 반응이 뒤따르게 된다. 즉 범죄발생의 전후 모든 개인적, 환경적 상황이 범죄행위나 범죄자와 관련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발생 전에는 범죄발생의 개인적, 환경적 원인들이 존재할 것이고, 범죄발생 후에는 이에 대한 한 사회의 제도적인 처리과정 (즉, 경찰 및 검찰, 법원, 교도소에서 주관하는 수사 및 기소, 판결, 수용과 처우)이 있게 된다. 이들 모든 사항은 범죄심리학의 연구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범죄행위와 범죄인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즉 범죄와 범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판결, 수용과 처우가 있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심리학은 범죄발생의 원인, 범죄수사와 관련된 각종 범죄심리학적 수사기법, 법정에서의 목격자 및 전문가 증언, 교정기관에서의 분류, 교정 및 치료, 석방 후의 사회적응, 범죄예방 및 감소, 범죄예측 및 통계 등의 연구영역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시업(2003)은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 설정과 관련하여, 범죄의 원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범죄인이 되기 전에는 일상인이었고, 그러나 그 일상인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인이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범죄심리학에서 다루게 되는 인간의 개념을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한 개인을 일반인에서 범죄인으로, 형을 치른 후의 사회복귀자 까지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 관련 주요 심리학 분야, 범죄심리학의 하위분야를 <표 5>와 같이 구상해 보았다.

위와 같은 시도는 법정심리학에 함몰되어 버린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고, 연구영역의 설정기준을 일반인→범죄인→사회복귀자라는 과정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그 과정에 따른 사회적 처리 반응과 대응되는 적절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으로써 범죄심리학은 연구의 지향점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범죄심리학적 연구와 실무적 응용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범죄심리학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인간의 범죄행위란 우선은 그 사회의 문화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 그렇지만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와 재물을 훼손시키거나 강제적으로 점유하는 행동은 ‘범죄’라고 규정된다. 이런 행동들을 모든 사회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려는 것은 인간에게 약간씩의 ‘범죄의 본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그리고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표 5〉 한국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의 탐색

범죄과정에 따른 인간 분류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 영역	관련 주요 심리학 분야	범죄심리학의 하위 분야
일반인	· 범죄와 관련된 생물, 생리, 정서, 성격, 사회적 환경(사회제도) · 개인발달 · 인지구조와 과정 · 가족· 대인관계 · 공격성 · 분노 · 도덕성 · 범죄예방	· 생리심리 · 사회심리 · 성격심리 · 인지심리 · 발달심리	· 범죄심리이론 · 범죄심리 연구방법론 · 범죄원인론 · 범죄 수사심리이론 · 범죄심리측정 및 평가 · 범죄심리통계 · 범죄 심리상담 및 치료 · 범죄예측론 · 범죄예방론
잠재적 범죄인	· 범죄성향 평가 · 범죄예측 · 청소년 비행과 이탈	· 심리측정 및 평가 · 범죄심리통계	
범죄 직전의 인간	· pre-crime 상태의 심리특성 연구 · 범행동기 · 범죄촉발의 심리사회적 요인	· 사회심리	
범행인	· 범행과정의 변화 · 범죄유형별 범죄자 심리 · 인질범과의 협상 · 면담기법 · 언어적, 행동적 분석기법 · 피해자	· 성격심리 · 인지심리 · 정신분석 · 생리심리	
수사대상자	· 프로파일링 · 최면수사 · 거짓말탐지기 기법		
피고인	· 피고인 신문 기법 · 정신감정 · 목격자 증언 · 형사책임능력(정신장애범죄인)	· 임상심리 · 인지심리 · 생리심리	
수형자	· 분류평가 · 상담치료 · 교육 · 재활 · 가석방	· 상담심리 · 임상심리 · 사회심리 · 생리심리 · 교정심리	
사회복귀자	· 전과자 심리특성 연구 · 재범 방지 · 재범 예측 · 재적응 연구	· 성격심리 · 상담심리 · 사회심리 · 교정심리	
범죄심리학			

범죄가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이고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은 범죄를 심리학의 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런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학'이 범죄를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학문 분야를 통합시켜 하나의 독립된 학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학은 범죄자 개인보다 범죄행위를 있게 하는 '사회'에 더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개인'을 간과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런 점에서 심리학은 그리고 범죄심리학은 범죄를 탐구할 때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범죄행위의 심리적 동기 및 제반 개인의 개인내적 인적 요인(예, 반사회적 성격, 생물 생리적 조건)과 개인외적 인적 요인(예, 가족, 친구)의 범죄와의 관련성을 더 많이 탐구한다. 이와 같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은 범죄의 원인, 인본적 수사와 처벌, 교정에 있어서 훨씬 더 과학적 이해와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범죄심리학은 특히 미국에서는 범죄심리학의 어의적 의미에 조차 부합되는 범죄심리학은 희소하다. 그 대신에 범죄심리학 또는 범죄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영역들과 재판과 관련된 연구영역들을 집단화시킨 것 같은 법정심리학이 있다. 미국에 비해 영국에서는 훨씬 더 일반적인 어의적 의미에 맞는 범죄심리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그 학문적 위상이 침체되어 가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 심리학의 학문적 풍토는 대다수의 일반인이나 심리학도들에게 '범죄심리학'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그에 걸맞는 학문적인 '범죄심리학'의 실체와 내용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1990년대에 들어 국내 심리학자에 의해서 '범죄심리학' '법심리학'이 책으로 출간되고, 한국 심리학회와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의 '법, 범죄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심포지움, 한국 심리학회에 '범죄심리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고, 경기대와 한림대에 범죄심리전공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이 생김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출발하게 되었다.

이같은 현실에서 범죄심리학의 정의를 규정하고 연구영역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에 소수 영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과, 그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범죄심리학이 발전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는 범죄심리학의 정의와 연구영역을 탐색적으로 설정해 보았다.

또한 국내 심리학자들의 범죄와 법 및 범죄심리학적 연구성과를 정리해 보고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기초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외국의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한국의 범죄심리학적 연구영역을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검토된 연구영역들은 일반인—범죄인—사회복귀자에 이르는 과정에 따라 인간을 분류하고, 그에 대응되는 적합한 연구영역과 관련 심리학 분야와 범죄심리학의 하위 분야들을 적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범죄심리학은 범행 발생의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범죄 전후의 전생애적인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응용적인 학문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요구되는 연구 지향점과 연구 및 응용적 활용에 필요한 지침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 한국 범죄심리학은 초보 수준인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국내와 외국의 범죄심리학과 범죄 관련 심리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구의 현대 범죄심리학 원리나 연구들을 한국의 범죄심리학에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범죄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 심리학의 학문적 성과와 타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들에 대한 철저한 고찰을 선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학문적 풍토에 적합한 범죄심리학의 발전적인 방향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심리학의 연구대상인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Mannheim, 1965). 따라서 한국의 범죄심리학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행위들 중에서 어떤 범죄행위를 연구해야 될 것인지와 그 각 범죄행위를 연구할 때 한국의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과 한국인의 고유한 체면, 한 등과 같은 정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구의 범죄심리학 또는 범죄 관련 심리학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연구 영역들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영역의 설정은 연구의 지침이 되며 학문적인 발전의 기초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범죄를 다루는 범죄학, 범죄사회학, 사회학, 경찰행정학, 정신의학 등과 같은 근접 학문 분야와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된다. 범죄는 매우 복잡다기한 인간의 한 측면이다. 따라서 범죄심리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또는 심리학의 다양한 하위 분야 (임상심리학,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실험심리학, 생리심리학, 사회심리학 등)와의 다학제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범죄심리학자 및 심리학도는 실제의

실무 분야에서 전문적 실무자로서 역할수행에 능동적이어야 한다.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실무 분야는 대표적으로 경찰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경·학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심리학의 학습 내용이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직접 응용될 수 있는 이론과 실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응용과 이론적 측면이 균형 되는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이제 시작하는 한국의 범죄심리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실무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심리학자나 심리학도들의 연구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범죄심리학 연구에 대한 학문적 공동의 장이 탄생되어야 하고, 이러한 학술모임을 한국심리학회에서는 학문적, 제도적인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에 범죄학과 경찰행정학의 학자들과 경찰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범죄심리학회'가 창립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홍, 백상철 (1994). 범죄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의 사용차이. *사회과학연구* (경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제 6집, 77-88.
- 김시업 (2002). 범죄심리학의 응용과 전망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 김시업 (2003). 범죄심리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서비스 대상의 세분화. 제6차 범죄심리사 워크숍 미발표 특강 자료.
- 노용우 (2000). 성적 살인의 심리. *현대사회과학 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1권 1호

- 박광배 (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박영숙 (1996). 청소년 범죄와 심리. 수사연구 148, 20-23.
- 이민규 (1987). 폭력적 범죄의 심리·사회적 요인. 교정 137권, 43-55.
- 이상현 (1985). 범죄이론에서 본 살인자의 심리.公安행정논총 2, 41-59.
- 이상현 (1988). 범죄수사활동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公安행정논총 3, 27-44.
- 이상현 (1994). 범죄심리학. 개정판. 서울: 박영사.
- 장병림 역 (1960).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Crime and Human Mind, David Abrahamsen 원저, 1944)
- 장병림 (1969). 절도심리의 원인분석-특히 소년 범죄를 중심으로. 교정 16권 6호, 50-56.
- 장병림 (1969). 범죄심리의 발생요인. 교정 16권 2호, 44-51.
- 장병림 (1970). 범죄심리는 욕구충족의 심리에 서인가. 교정 17권 6호, 29-35.
- 정한택 (1970). 청소년의 범죄에서 범행후의 심리. 교정 7권, 27-31
- 정한택 (1971). 청소년 난동범죄의 심리. 교정 18권 7호, 50-54.
- 조종식 (1993). 범죄와 범죄심리 1, 2. 치안문제 146, 62-67. 치안문제 149, 74-81.
- 차재호 (2001). 범죄와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 홍성열 (2000). 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 홍성열 (2001). 모방범죄의 원인과 심리. 수사연구 19권 12호 통권218호, 10-15.
- Andrews, D. A., & Bonta, J. (1998, 200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Anderson Publishing Co.
- Bartol Curt R. (2001). Criminal Behavior-A Psychosocial Approach. New Jersey: Prentice Hall.
- Blackburn, R. (199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hicester, UK: Wiley.
- Feldman Philip. (1993). The Psychology of Crime. New Youk: Cambredge University Press.
- Kallen Horace M. 역 (1968). Criminal Psychology. New Jersey: Patterson Smith Publishing Co. Translated from Hans Gross. J. U. D. (1905). Criminal Psychology(2nd)
- Hollin Clive R. (1989). Psychology and Crime-An introduction to criminolog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 Mannheim, H. (1965). *Comparative criminology*. Boston: Houghton Mifflin
- Nietzel Michael T. (1979). Crime and Its Modification. New York: Pergamon Press Inc.
- Putwain David & Sammons Aidan. (2002). Psychology and Crime. New York: Rougledge.
- Wolfgang, M. E., & Weiner, N. A. (1982). Criminal violence. Beverly Hills, CA: Sage.
- Wrightsmann, L. S. (2001). Forensic psychology.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1 차 원고 접수일 : 2005. 5. 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5. 20

Searching the Major Research Domains for Establishing the Korean Criminal Psychology

Si Up Kim

Dep. Crimi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research domains of Criminal Psychology, which is needed to improve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Korean Criminal Psychology. Some major textbooks of Criminal Psychology, Forensic Psychology, Legal Psychology are written by Korean and foreign psychologists. Major definitions and research domains of Criminal Psychology were compared and reviewed. For aggregating the criminal psychological researches were studied by Korean psychologists, a total of 211 articles and papers, which was published b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 Sub-psychological Associations*, and *Korean Law Psychological Association*, were reviewed. Several the major research domains in Criminal Psychology were suggested as follows: General psychological theories, aggression • anger • morality, adolescent delinquency, mind and motivations of criminals, victims, investigation techniques, testimony, assessment • counseling • correction • rehabilitation of criminals,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crime.

key words : criminal psychology, forensic psychology, legal psychology, research domain.

〈부록 1〉

한국 심리학자들의 범죄심리학과 법심리학 관련 연구의 제목과 그 연구영역의 분류

· 연도순으로 정리 ·

<이론적 기초>

· 일반심리학 및 심리학 하위분야의 이론적 기초

청소년문제

이상로 (1971). 성인사회와 청년기의 문제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 153-157.
원호택 (1985). 靑少年問題를 위한 臨床・相談의 接近. 1985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39-50.
곽금주·윤진·문은영 (1993). 한국 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12-27.
박윤창·이미경·윤진 (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3-64.
박영신·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심혜숙·김명권 (1998). MBTI에 나타난 비행청소년 성격유형과 행동특성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227-250.
양돈규·임영식 (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55-74.
곽금주 (1999).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프로그램 (I):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05-122.
양계민·정현희 (1999).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91-104.
곽금주 (2000).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프로그램II.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111-123.

권준모 (2000). 전자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223-237.
김시업 (2000). 청소년 매매춘과 원조교제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15-27.
김정운 (2000). 청소년의 역사제도적 구성: 청소년문제의 기원.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97-110.
김혜원·이해경 (2000). 남녀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성태도 현황에 근거한 성교육 방향의 모색.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239-261.
김혜원·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박영신·김의철 (2000). 청소년의 학교폭력행동 형성과 변화.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39-69.
박윤창 (200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소고.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83-96.
이유섭 (2000). 청소년의 정신분석적 이해.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197-210.
이훈구·홍영오 (2000). 학교폭력의 행위결정과정: Fishbein 이론의 적용.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1-15.
조성호 (2000).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화: 통합적 접근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47-67.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중독관련 문제점 및 대책.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17-37.
한종철·김인경 (2000). 도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김경희 (2001). 음란물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의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5-25.
- 김경희 · 이회정 (2001). 품행장애 청소년의 자기 개념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2001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41-47.
- 김시업 (2001).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매춘행위적 접근.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91-114.
- 김현정 (2001). 부모의 훈육 방식과 아동기 문제 행동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81-95.
- 김혜원 · 김명소 (2001). 청소년 매매춘의 현황과악, 원인규명 및 예방책 제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1), 43-59.
- 문성원 (2001). 자살행동과 충동성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특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2001년 사회 및성격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II, 36-50.
- 박영신 · 김의철 (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서경현 ·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폭력에 대한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91-106.
- 이해경 ·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한상철 (2001).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1-21.
- 김민지 · 한종철 (2002). 비행청소년의 MMPI 긍정왜곡에 따른 임상척도와 내용척도의 특성. 2002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및 정기총회 자료집, 27-35.
- 김시업 · 김지영 (2002). 미성년자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15.
- 박영신 · 김의철 (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서경현 (2003).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61-78.
-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55-68.
- 박영신 ·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87-115.
- 박영신 · 김의철 ·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신현숙 · 이경성 · 이해경 · 신경수 (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 이경숙 · 엄혜련 · 정영운 (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AAD)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11-532.
- 이경진 ·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수정 · 고선영 · 이춘근 (2004). 고위험 비행청소년들의 역기능적 정서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13.
- 이순철 (2004). 청소년의 문제행동 이해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1-10.

공격성

- 윤호윤·정양은 (1971). 대리적 공격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 169-177.
- 최상진·홍성운 (1979). 텔레비전 폭력장면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 259-272.
- 윤진 (1986). 공격행동에 대한 연구동향 - 특히 선정적 자극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5회 한국심리학회 동계연수회 사회심리학의 전개와 방향, 329-360.
- 박윤창·윤진 (1988). 성역할 태도와 공격적 영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1), 213-240.
- 곽금주·윤진 (1992). 공격성의 사회인지적 매개과정에 관한 두가지 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1-10.
- 최광선·정명선 (1999). 공격특성과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이 시청자의 기분변화, 폭력영화 및 피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23-139.
- 박윤창 (2001). 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재. 2001년 사회및성격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II, 51-65.
- 서수균·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서수균·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분노

- 김교현 (1995). 분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노출이 생리적 각성, 정서 및 인지적 이해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237-252.
- 전점구 (1999). 정서의 문화적 구성 분노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1999년도 하계심포지움: 문화와 심리학, 59-102.
- 이훈진 (2000).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27-438.

- 천성문·이영순·이현림 (2000).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53-82.
- 신미영·김재환 (2001). 내원 청소년의 분노 표현양식에 따른 MMPI 반응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99-309.
- 이훈진 (2001). 편집성향 집단의 분노표현양식과 개인 및 추론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443-452.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15.
- 고영건·안창일 (2003). 분노 억압 집단의 방어적 투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641-660.
- 신현균·임지영 (2003). 한국판 청소년 분노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449-462.
- 서수균·이훈진·권석만 (2004).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521-540.
- 이은희·공수자·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도덕성

- 박종락·이종현 (1982). 학생들의 도덕판단에 관한 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 159-171.
- 김시업·김기범 (2003).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 도덕적 self로서의 염치(廉恥)와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87-101.

• 범죄심리학적 이론기초

- 차재호 (2001). 기초강연: “범죄와 심리학”.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1-29.

- 김시업 (2002). 범죄심리학의 응용과 전망. 2002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및 정기총회 자료집, 117-125.
- 김시업 (2003). 범죄심리학의 정의와 연구영역에 대한 고찰. 2003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춘계세미나: 범죄심리학 그리고 수사, 8-18.
- 양계민 · 김의철 (2003). 청소년기 제한형 및 평생 지속형 범죄 청소년의 판별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1), 63-88.
- 전우병 · 고선영 (2003).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 및 수사심리의 위치. 2003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춘계세미나: 범죄심리학 그리고 수사, 46-61.
- 조은경 (2003). 한국 범죄심리학의 현재. 2003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춘계세미나: 범죄심리학 그리고 수사, 20-23.
- 홍성열 (2003). 한국 범죄심리학의 미래 발전적 전략. 2003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춘계세미나: 범죄심리학 그리고 수사, 24-35.
- 김지영 · 최상진 (2004). 아내폭행 원인에 대한 통합적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77-95.

• 범심리학적 이론기초

- 고재홍 (1995). 처벌크기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9(2), 29-50.
- 박광배 · 최상진 · 이훈구 (1998). 범심리학의 영역: 요약.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49-71.

<응 용>

• 범죄심리학적 응용

청소년범죄자

- 김영진 (2000). 청소년범죄사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2000년 범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 · 법 · 심리, 71-81.

- 김의철 (2001). 아동 청소년 범법자에 대한 특별지위인정의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53-89.
- 옥정 · 오윤희 · 정현옥 (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양계민 · 김의철 (2002). 청소년 범법자의 특별지위인정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32.
- 이규미 · 이대식 · 김영혜 (2003). 심각한 폭력(살인)가해 학생에 대한 사례 분석: 폭력 유발 요인과 예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67-382.
- 강태신 · 박선영 · 전우병 · 김시업 (2004). 범죄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격과 전두엽 계획 기능의 차이와 그 관계. 2004년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세미나: 심리학과 형사정책, 59-71.
- 고선영 · 이수정 (2004). 재범소년들의 정신병리적 특성. 2004년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세미나: 심리학과 형사정책, 32-58.

성인범죄자의 범죄동기와 심리 및 행동

- 김양희 (1995). 성희롱: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책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17-32.
- 이수정 · 방희정 · 김시업 (2000). 성인범과 소년범의 범죄성향 비교: 재범 예측요인으로서의 범죄성향. 2000년 범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 · 법 · 심리, 263-270.
- 김자경 (2001). 자아방어기제에 따른 수형자 특성연구. 2001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II, 66-74.
- 정진경 · 양계민 (2003).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과 관련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53-75.
- 고선영 · 양종희 · 이수정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

- 회문제, 10(특집호), 117-146.
- 김민지 (2004). 미국 연쇄살인범죄의 특징 및 대책. 한국법심리학회 2004 추계 학술회의 연쇄 살인 범죄와 법심리학적 제문제, 71-90.
- 오익준·윤외출 (2004). 이상동기 범죄 4 사례 한국법심리학회 2004 추계 학술회의: 연쇄 살인 범죄와 법심리학적 제문제, 91-103.
- 이수정·김경옥 (2004). 유명철에 관한 몇 가지 의문. 한국법심리학회 2004 추계 학술회의 연쇄 살인 범죄와 법심리학적 제문제, 51-70.
- 이유섭 (2004). 연쇄살인의 정신분석적 이해 유명철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법심리학회 2004 추계 학술회의: 연쇄 살인 범죄와 법심리학적 제문제, 1-19.
- 범죄수사(면담과 신문기법, 최면과 최면수사, 거짓말 탐지, 프로파일링, 협상)**
- 차재호 (1995). 협상의 심리학. 전반적 개관 1995 년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협상과 심리학, 3-13.
- 황상민 (1995). 한국인의 협상 마인드 1995년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협상과 심리학, 17-45.
- 김종률 (2001). 거짓말탐지기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한국법심리학회 2001 하반기 심포지움: 폴리그라프, 5-21.
- 김종률 (2001). 형사피의자에 대한 행동분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연구.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55-97.
- 김현택 (2001). 거짓말의 심리생리학적 반응 한국법심리학회 2001 하반기 심포지움: 폴리그라프, 23-28.
- 민성길 (2001). 거짓말의 정신의학 한국법심리학회 2001 하반기 심포지움: 폴리그라프, 31-38.
- 박광배 (2001). 범죄자 유형파악(criminal profiling).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33-54.
- 박광배·배현정 (2001).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의 유용성: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1), 1-24.
- 정운성 (2001). 한국 법실무에서의 폴리그라프 한국법심리학회 2001 하반기 심포지움: 폴리그라프, 41-49.
- 최상진 (2001). 협상을 통한 중재 및 조정의 역할.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215-237.
- 표창원 (2001). 범죄심리학적 수사 기법.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99-114.
- 조은경 (2002). 거짓말의 특징과 탐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33-65.
- 공은경·양종희 (2003). 최면수사의 이해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3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춘계세미나: 범죄심리학 그리고 수사, 62-82.
- 권일용 (2003). 한국 경찰에서의 범죄심리 수사기법 활용. 2003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춘계세미나: 범죄심리학 그리고 수사, 138-141.
- 김경옥·이춘근 (2003). 범죄심리학과 CRIMINAL PROFILING. 2003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춘계세미나: 범죄심리학 그리고 수사, 112-137.
- 박종현·정대운 (2003). 거짓말탐지 수사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3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춘계세미나: 범죄심리학 그리고 수사, 84-111.
- 권일용·김용화 (2004). 연쇄살인범의 지리적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법심리학회 2004 추계 학술회의: 연쇄 살인 범죄와 법심리학적 제문제, 104-122.
- 김경하·김미영·전충현·전우병·김시업 (2004). 용의자의 거짓말 탐지를 위한 비언어적 단서탐색. 2004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및 심포지움 자료집, 63-77.
- 김미영·김경하·전우병·김시업 (2004). 인지면담기법이 아동과 성인의 사건회상 정확성에 미치는

- 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37-151.
- 김미영·김경하·전우병·김시업 (2004). 인지면담의 네 가지 기법간 효과 비교 연구. 2004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및 심포지움 자료집, 19-30.
- 김경옥·이수정 (2005).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31-149.
- 김시업·전우병·김경하·김미영·전충현 (2005). 용의자의 거짓말 탐지를 위한 비언어적 단서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51-162.
- 조은경·이미선·김재홍 (2005). 거짓말의 특징에 대한 신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85-198.
- 범죄인 심리평가 및 그 측정도구(정신감정)**
- 이인혜 (1991). 범죄행동과 성격특성의 연결.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충동성 그리고 감각추구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126-136.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수정·서진환·이운호 (2000). MMPI 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실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43-62.
- 김중술·유성진 (2001). 범죄자 및 범죄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유용성, 방법 및 사례.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137-158.
- 박은영·홍상환·이전아·김영환 (2001). 물질남용집단의 PAI 프로파일 유형과 물질사용척도의 진단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711-730.
- 양종국 (2001). 소년보호교육기관의 특수인성검사. 2001년 사회및성격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II, 103-115.
- 이수정·변지은 (2001). 수형자 분류심사 도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49-387.
- 현명호 (2001). MMPI의 현장적용. 2001년 사회및성격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II, 116-121.
- 박지선·이민규 (2003). 정신감정이 의뢰된 범죄자들의 MMPI 프로파일 양상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1), 203-214.
- 최상섭 (2003). 범죄수사와 판결에 있어서 피의자의 정신감정. 2003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춘계세미나: 범죄심리학 그리고 수사, 38-44.
- 이수정·허재홍 (2004). 잠재적 범죄위험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psychopathy).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문제, 10(2), 39-77.
- 이훈구·이수정 (2004). Hare의 정신병질검사의 타당성 예비조사연구: 유명철과 이은석 검사결과. 한국법심리학회 2004 추계 학술회의 연쇄 살인 범죄와 법심리학적 제문제, 20-50.
- 정유희·안창일 (2004).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수형자의 NEO-PI-R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25-740.
- 김동민·박현진·김지훈 (2005).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57-176.
- 범죄인 상담, 교정 및 사회복귀**
- 이수정·이운호 (2000). 교정 분류 심사 절차 개정. 2000년 사회및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회, 47-51.
- 강호성 (2001). 보호관찰 제도와 심리학의 기여 방안.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325-342.
- 김명권 (2001). 재소자를 위한 교정심리치료. 2001년 사회및성격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II, 1-13.
- 김시업 (2001). 범죄 행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교정 심리학자들의 역할과 기능. 2001년 사회및성격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II, 75-93.
- 김정원·김명권 (2001). 교정장면에서 '의식개발 프로그램'의 적용. 2001년 사회및성격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II, 14-26.
- 이수정·김영신 (2001). 심리학의 교정현장에의 적

- 용.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195-225.
- 이운호 (2001). 교정시설 내에서의 심리학 2001 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255-260.
- 이주성 (2001). 교정현장에서의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2001년 사회및성격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II, 95-102.
- 장규원 (2001). 범죄자처우와 형사제재의 이원주의.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313-324.
- 정영운·여운철 (2001). 교정시설 내에서의 심리학.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261-267.
- 조성희 (2001). 우리나라 치료감호와 심리학의 적용.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271-293.
- 조은경 (2001). 보호관찰 제도와 심리학의 기여 방안.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295-311.
- 우광현 (2002). 보호관찰제도와 범죄심리사 1 급 연수생의 기여방안. 2002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130-139.

범죄예측

- 이수정·이운호·이훈구·공정식·박수애·이주성 (2000). 수형자들의 문제행동 예측가능성 및 재범예측가능성 척도의 개발. 2000 년도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하계학술발표회, 97-103.
- 박은영·홍상환·정상문·김영환 (2002). 수형자의 PAI 프로파일과 범법행위 예언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41-954.
- 이수정·윤옥경 (2003). 범죄위험성의 평가와 활용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99-126.
- 이수정·조은경 (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측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27-43.

피해자

- 조은경 (199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29-51.
- 김일옥 (1997). 성폭력의 피해경험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 137-150.
- 김현정 (1998). 여성에 대한 남성의 동기와 성적 괴롭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133-147.
-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권희경·박경 (2003). 성폭력 장기후유증 척도의 타당화 연구: 중·고·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15-33.
- 권희경·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21.
- 신민섭·오경자·홍강의·김해숙 (2004). 가정 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11-636.

여성범죄

- 김시업·이혜선·손지선·전우병 (2004). 여성살인범의 범행관련 특징과 PAI에 나타난 성격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111-129.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

- 최상진·김기범 (1999). 범죄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여론과 언론보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37-150.
- 이진로 (2004). 범죄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연쇄살인범에 대한 언론 보도 사례 분석. 한국법심리학회 2004 추계 학술회의: 연쇄 살인 범죄와 법심리학적 제문제, 123-140.

• 법심리학적 응용

재판

- 박광배 · 홍성진 (1993).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결 및 선고의 일관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2), 73-89.
- 박광배 (2000). 언론의 심리적 영향으로부터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141-157.
- 박광배 (2001).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범죄보도행태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 미국 및 네덜란드 신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07-135.
- 정태연 (2001). 변호사의 스트레스가 변론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317-333.
- 차재호 (2001).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183-212.
- 한규석 (2001). 언론이 재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257-284.
- 홍성열 (2001). 재판과정 및 절차가 피고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287-315.
- 고재홍 (2004). 유·무죄 판단에 대한 두 종류의 부담감이 판단결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인의 경우.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62-92.
- 김상준 (2004). 한국 사법개혁에 있어서 배심제 도입 논의와 그 구체적 실현 방안.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187-223.
- 김종철 (2004). 사회이론적 관점에서 본 시민참여재판.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93-97.
- 도중진 (2004). 일본의 재판원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127-148.
- 박광배 (2004). 재판상황에서 개인의 판단과 집단도의 판단의 차이.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35-61.
- 봉옥 (2004). 시민참여 재판시스템 도입의 성공조건.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172-186.
- 심희기 (2004). 시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역사적 관점.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168-171.
- 이재협 (2004). 미국문화의 특징과 배심재판제도.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118-126.
- 이훈구 (2004). 심리학자가 들여다 본 한국 법정의 재판광경.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1-21.
- 조운선 (2004). 조선시대 법문화와 법인식을 통해서 본 시민참여재판 도입의 의의.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105-117.
- 채동배 (2004). 미국의 배심재판제도.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22-34.
- 최대권 (2004). 배심제도의 도입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149-167.
- 한규석 (2004). 시민의 사법참여: 그 필요성과 고려해야 될 한국인의 사회심리.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98-104.
- 박광배 · 김상준 · 한미영 (2005).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59-84.

증언

- 이은진·이수정 (1999). 증인의 기억 왜곡에서의 무 관련 정보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3-14.
- 이수정 (2001). 허위증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239-255.

형사책임

- 신양균 (2001). 형사책임과 정신감정.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159-168.
- 이창무 (2001). 형사책임과 심리학.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169-182.
- 정규원 (2001). 형사책임과 정신감정.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117-136.

법과 법률제도

- 박광배 (2000). 미국의 의제강간법과 심리/사회학적 연구문제.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163-195.
- 방은령 (2000). 청소년 관련법과 제도 개선안: 보호와 육성을 중심으로.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125-140.
- 이혜원 (2000).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141-161.
- 김동일 (2001).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학제간 심포지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5-10.
- 박광배 (200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제지(Deterrence) 효과. 2001 학제간 심포지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40-48.
- 이영란 (200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2001 학제간 심포지움: 청소년 성범죄자

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30-39.

- 이원숙 (200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토론. 2001 학제간 심포지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16-24.
- 조기룡 (2001). 가석방제도의 현황과 전망.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범죄와 심리학, 227-254.
- 채규만 (2001). 청소년 성 매매자들의 신상공개의 심리적인 영향. 2001 학제간 심포지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5-29.
- 최원기 (2001). 신상공개제도의 현실적 효과와 보완적 방향성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 2001 학제간 심포지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11-15.
- 황성기 (200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2001 학제간 심포지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49-68.
- 박광배·지형기 (2004).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 치료적 사법이념의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69-86.
- 이인영 (2004).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대체형으로서 종신형 도입에 관한논의. 한국법심리학회 2004 추계 학술회의: 연쇄 살인 범죄와 법심리학적 제문제, 141-161.
- 법의식과 법률행위**
- 류운상·박광배·윤진 (1996). 탈세에 대한 형평성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0(2), 23-33.
- 박광배 (1996). 범범의 원인과 준범의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0(2), 1-21.
- 박광배·조은경 (1998). 자발적인 준범행위의 촉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95-136.
- 곽금주 (2001). 아동, 청소년의 법 규범의식 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157-180.

- 김이영 (2001). 아동 청소년의 민법상 법률행위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27-50.
- 박광배 (2001). 아동, 청소년의 성적 행위결정능력. 한국법심리학회 2001 심포지움: 사법판단 및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문제, 117-154.
- 최상진 · 김정인 · 박정열 · 손영미 (2001). 주차위반 유발에 관여되는 위반상황 해석양식과 위반자들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91-117.
- 김시업 · 김지영 (2002). 무정유죄(無情有罪) 유정무죄(有情無罪): 정리(情理)와 법리(法理)의 갈등. 2002년도 한국법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한국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까닭은?, 39-51.
- 박상철 (2002). 한국인의 법의식. 2002년도 한국법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한국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까닭은?, 19-37.
- 이승환 (2002).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철학적 고찰. 2002년도 한국법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한국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까닭은?, 1-10(별세권).
- 황승흠 (2002). 한국의 법문화는 비법적인가: 법사회학 논의의 탐색. 2002년도 한국법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한국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까닭은?, 5-18.
- 김시업 · 김지영 (2003). 한국인의 법의식: 법리(法理)와 정리(情理)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67-79.
- 이종한 (2003). 사고공화국에 대한 심리학적 제의: 안전사고의 심리적 기제와 대안 모색에 관하여. 여덟 편의 논문을 안내하면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특집호), 1-14.
- 허태균 (2005). 무법으로 태어나 준법을 거쳐 위법으로 성장하는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17-131.
- 허태균 · 황재원 · 김재신 (2005).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준법의식의 약화에서 인지부조화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25-42.